

# 「宗教学은 比較宗教学이다」

— 第14次 國際宗教學會에 다녀 와서 —

黃 弼 昊

(東國大 助教授)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종교가 존재해 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종교가 다양한 교리와 교단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에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이렇게 다양한 종교에 참여하는 신도들은 각기 다른 삶의 의미를 종교로부터 찾게 될 것이다.

어느 종교는 人格神을 신봉하며, 다른 종교는 非人格의인 궁극자나 궁극적인 실재를 신봉할 것이다. 어느 종교는 절대자의 은혜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다른 종교는 끊임없는 인간의 수양에 의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느 종교는 내세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제시하고, 다른 종교는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욱 귀중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다같이 인격신을 섬기면서도 어느 종교는 一元論的인 유일신을 신봉하고, 다른 종교는 二元論이나 多元論에 입각한 궁극자를 신봉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교의 다양성(the multiplicity of religion)은 종교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인간들은 각기 다른 종교로부터 각기 다른 종교적인 경험을 맛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인간들은 동일한 종교로부터도 각기 다른 종교경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인간이라도 동일한 종교로부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교경험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제임스(William James)는 「종교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느 두 사람도 동일한 문제나 동일한 해결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각자는 그 자신의 독특한 관점에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자는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어느 사람은 부드럽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강경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각자의 직책을 수행할 때도 어느 사람은 약간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에머슨(Emerson)이 웨슬리(Wesley)이어야 하고 무디(Moody)가 휘트만(Whitman)이어야 한다면 궁극자에 대한 전체적인 인간의 의식(the total human consciousness of the divine)은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자란 한 가지 속성만을 의미할 수가 없다. 자기 다른 인간들이 제나름대로 가치있는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속성을 의미해야 된다. 각자의 태도가 인간의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보면 한 개의 문장에 불과하면서도, 우리들 모두가 궁극자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사람에게든 전쟁의 하느님이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의 하느님, 하늘의 하느님, 가정의 하느님이 있어야 한다.”<sup>1)</sup>

“전통의 접촉과 변화”(Traditions in Contact and Change)라는 주제를 내걸고 지난 1980년 8월 17일부터 4일동안 마니토바 대학교(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Canada)에서 열렸던 제 14차 국제종교대학대회(The 1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 Manitoba Congress)에 참석했던 필자가 맨처음 피부로 느낀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교와 종교경험의 다양성이었다.<sup>2)</sup> 자기 다른 신앙을 가진 대학교수, 성직자, 명상가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700여명이나 몰려왔던 거대한 국제회의였기 때문이다.

대회는 20개의 분과와 2개의 특수분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파별 분과로는 아프리카 종교, 中近東 종교, 불교, 기독교, 구동아시아 종교, 인디아 종교, 유대교, 미주대륙 토착 종교의 9개가 있었고, ② 학문별 분과로는 종교학 방법론 및 종교해석학, 비교종교학 및 종교현상학, 종교인류학, 종교사회학, 언어학 및 경전해석학, 종교심리학, 종교철학의 7개가 있었으며, ③ 종교학과 인접과학의 관계에 대한 분과로는 종교학과 여성학, 종교학과 문학, 종교학과 예술, 종교학과 윤리

1)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 A Study of Human Nature*, New York, Macmillan, 1961, pp. 378 - 379.

2) 우리나라에서 일부의 학자들이 JAHR를 宗教史學會로 부르는 것은 미국의 시카고 학파에서 종교학을 영어로 “History of Religions”로 번역하면서도 그것이 절대로 史學(historical disciplines)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뮐러(Max Müller)가 처음 사용한 “Religionswissenschaft”를 영어로는 “Religiology”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종교학의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낸다고 주장한바 있다. 黃昊弼, “宗教學이란 무엇인가?” 宗教學研究(宗教學研究會), 제1집, 1978, pp. 85 - 88.

의 4개가 있었으며, ④ 특수분과로서는 종교학에 미치는 마르크시즘의 영향과 캐나다 - 중국에 관한 심포지움의 2개가 있었다. 특히 캐나다 - 중국의 심포지움에는 中共의 社會科學院 世界宗教研究所에 근무하는 학자 3명이 모택동의 복장을 하고 참석했었다.

한국의 학자로는 불교분과에서 “Chinul and the Kamakura Buddhism : Sectarian Development in Korean Buddhism”을 발표한 St. Olaf College (Minnesota, U. S. A.)의 길 회성 박사와 “Zen Buddhism in Korea”를 발표한 원광대학의 한 기두 교수, 그리고 극동 아시아 종교의 분과에서 “The Hua - yen Tradition & the Korean Scholars of the 7th Century”를 발표한 University of Regina (Regina, Canada)의 오 강남 박사와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Mencius and Kant : A Comparative Study”를 발표한 필자였다. 그리고 종합강연의 특별연사로는 작년에 시카고 대학교의 신학대학장직을 정년퇴직한 기타가와 (Joseph Kitagawa) 교수, 스리랑카의 카루나라트네 (W. S. Karunaratne) 교수, 본 (Born) 대학교의 쉘멜 (A. Schimmel) 교수, 하바드 대학교의 스미트 (Wilfred C. Smith) 교수였다.

종교와 종교의 만남, 갈등, 투쟁, 타협, 대화는 오늘날 필연적인 일이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彼岸의 放火는 오늘날 존재할 수 없고 20세기의 로빈슨 크루소는 존재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종교가 사회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하려면 먼저 종교와 종교간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간의 대화는 종교와 사회와의 대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1 운동때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종교간의 진정한 대화는 과연 가능한가?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경험의 다양성을 솔직히 인정하는 종교학이 과연 모든 종교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종교학도는 절대적인 객관성 (absolute objectivity)이란 이상적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sup>3)</sup> 그러나 개인의 신앙과 상충되는 진리주장 (the

---

3)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객관성은 이상적인 것도 아니다. 종교학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according to)가 아니라 거기에 견주어서 (with reference to) 다른 종교를 연구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Cf. Gustav Mensching, Tolerance and Truth in Religion, trans. by Hans-J. Klimkeit, The University of Alabama, 1971, pp. 166 ~ 167.

conflicting turth claims)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종교학의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종교학도도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신념, 편견,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그리하여 어느 종교학자는 종교학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판단중지(an absolute suspension of judgment)란 현상학적인 속임수(the phenomenological hoax)라고 말했다. 둘째, 종교가 만일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인간의 육체적 및 정신적 승화의 발동음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에 일상성을 초월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윤리성에 어떤 정당성을 줄 수 있다면” 종교는 어느 한 학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역사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유형학적, 철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셋째, 종교학이 갖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든 종교가 —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과 같은 제시종교뿐만 아니라 — 제나름대로의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종교는 제나름대로는 언제나 절대적이며, 그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에게는 언제나 절대적인 명령을 내린다. 종교란 인간이 직접 참여하는 행위(a participating activity)이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므로 이렇게 상충하는 진리주장에 대한 종교학도의 객관적인 연구는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은 처음부터 비교종교학으로 출발했고, 오늘날에도 비교종교학으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종교학자들은 “하나의 종교를 알면 모든 종교를 알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종교를 알아야 — 비록 어느 정도라도 — 하나의 종교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제종교학회(IAHR)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다.

국제종교학회는 1949년에 바젤의 A. Bertholet, 그로닝겐의 G. van der Leeuw, 암스텔담의 C. J. Bleeker 와 W. F. Albright, A. D. Nock, R. H. Lowie, Joachim Wach와 같은 미국학자를 포함한 29명의 종교학자들이 당시 홀란드의 Genootchap van Godsdienshistorici의

4) 黃弼昊 撰, 「宗教哲學概論」 종로서적, 1980. p. 9.

5) cf. W. Brede Kristensen, “The Meaning of Religion,” Phenomenology of Religion, ed., by Joseph D. Betts, Harper & Row, New York, 1969, p. 34.

이름으로 발송된 초청장의 결과로 1950년에 정식으로 창립된 기구이다.<sup>6)</sup> 초대 회장은 G. van de Leeuw였고, 역대의 회장으로는 로마의 Raffaele Pettazoni, 올살라의 Geo Widengren, 스트라스부르그의 Marcel Simon 을 거쳐서 현재는 본(Born) 대학교의 Annemarie Schimmel 이 맡고 있다. 초대 사무총장은 C. J. Bleeker 였고 그 이후에는 맨체스터의 S. G. F. Brandon, 암스텔담의 Eric Sharpe 를 거쳐서 현재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 근무하는 R. J. Zwi Werblowsky 가 맡고 있다. 그리고 세계종교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는 1954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Numen 이라는 전문지와 1950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국제 종교학자의 인명록이 있다.

1950년의 암스텔담 대회(Amsterdam Congress)의 주제는 “문명에 있어서의 神話와 儀禮의 樣態”(The Mythic-Ritual Pattern in Civilization) 였다. 이 대회에서 특기할 일은 당시의 사무총장인 C. J. Bleeker 가 국제종교학회는 동양에서 새로 일어나고 있는 동양전통에 대한 연구를 위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동양의 학자들을 초청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학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1958년에 서양을 벗어난 일본의 동경에서 “東과 西의 宗教와 思想: 100年間의 文化交流”(Religion and Thought in East and West: A Century of Cultural Exchange)라는 주제로 대회를 열었다. 당시 동서의 문화교류는 그리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었다. 서양의 학자들은 종교를 정제된 학문의 대상으로 간주했고, 그들의 연구는 고대종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고작이었다. 반대로 동양의 학자들은 종교를 궁극자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삶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종교는 삶”(Religion is to be lived)이라는 표어를 굳게 신봉하고 있었다.

이러한 쌍방의 지나친 편견을 동시에 시정하려는 이 대회의 정신은 “종교통합의 길로서의 종교학”(The History of Religions as a Way to Unity of Religion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Friedrich Heiler 의 강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여기서 일반적인 서양의 종교사상은 그들의 전통성과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으로 특징지어 왔다고 말하고, 이제는 Max Müller, Nathan Söderblom, Rudolf Otto, Tor Andrae Alfred Loisy,

6) 그러나 국제종교학회는 1900년에 열렸던 파리(Paris) 대회를 제1회로 계산한다

G. van der Leeuw, Raffaele Pettazoni 와 같은 위대한 종교학자들의 관용성과 포용성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종교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빛을 비추어 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진리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인류를 위한 관용과 협동의 정신을 발휘할때 인간에게는 진정한 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 시대의 예비를 돕는 일이 바로 종교학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sup>7)</sup>

1960년의 말부르그 대회(Marburg Congress)에서는 동양의 사상이 종교학뿐만 아니라 종교학 방법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토론했다. 그리하여 C. J. Bleeker는 “종교학의 미래의 과제”(The Future Task of the History of Religions)라는 강연에서, 동양의 종교전통은 직관을 애용하는 반면에 서양의 종교전통은 자신의 규범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한 합리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로 “동양과 서양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R. J. Zwi Werblowsky는 Joachim Wach의 「比較宗敎學」을 비판하고, 국제종교학회는 동과 서의 대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학이나 국제정치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편견을 초월한 순수한 인문과학으로서의 종교학을 고수해야 된다는 성명서 — 그는 이 성명서를 “최소한의 전제조건”(the basic minimum presuppositions)이라고 불렀다 — 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서명한 사람으로서는 Brandon, Eliade, Goodenough, Kitagawa, Simon, Zahner 와 같은 학자들이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1965년의 클레어몬트 대회(Claremont Congress)에서는 W. C. Smith가 “전통종교와 현대문화”(Traditional Religions and Modern Culture)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 및 상호영향은 종교와 문화의 문제가 바로 “우주적인 문제”(a cosmic question)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Smith는 이미 1963년에 발표한 「宗教의 意味와 目標」(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라는 저서에서,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그들의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지적인 학문의 관습이 화석화된 규범으로 타락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Homo Religiosus를 진실로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 방법로서는 어느 개인이나 단

7) Eric J. Sharpe, Comparative Religion : A History, Duckworth, 1975, p. 272.

체가 전수해서 받아온 “축적된 전통”(cumulative tradition)과 신앙(faith)이라는 두가지 길을 동시에 채택함으로써 종교제도에 대한 당파적인 토론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mith는 1964년의 인디애나 초청회의(Invitational Conference on the Study of Religion in Indiana State University)에서 “비서방적인 종교연구”(Non-Western Studies: The Religious Approach)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그는 학문의 지역적인 분열을 경고하고 동양사상을 연구할때 갖기 쉬운 서양의 관념론이난 방법론을 통박했다.<sup>8)</sup>

1970년의 스톡홀름 대회(Stockholm Congress)에서는 Eric Sharpe가 종교학자는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적인 방법론을 지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비교종교학은 엄격한 양자택일의 방법론이 아니다. 종교학자들이 한 가지 방법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다른 지방에게는 생소한 자기의 방법만을 주장하려는 고집을 버릴 때 진정한 종교학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종교학은 상호경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호보충적인 방법 — 역사적 방법, 사회학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철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 을 택해야 된다.”<sup>9)</sup>

1980년의 마니토바 대회(Manitoba Congress)에서도 W. C. Smith는 종교의 다양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분석자의 참여(an analyst's participation)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분석(a participant's analysis)을 시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sup>10)</sup> 이러한 노력의 끊임없는 결과로서만 진정으로 “타인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sup>11)</sup>

이상과 같은 국제종교학회의 역사적 고찰은 종교학의 진정한 임무는 다양한 종교전통을 조화시켜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인정하려는 몸부림치

8) Smith는 그의 지도아래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종교학센터를 창립할때 인디아의 철학자인 S. Radhakrishnan을 기조연사로 초청했었다. 그리고 그는 1962년에는 캐나다의 라더옌을 통하여 “他人的의 信仰”(The Faith of Other Men)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토론했다.

9) Eric Sharpe, op. cit., p. 292

10) cf. Willard G. Oxtoby, ed., Religious Diversity: Essays by Wilfred Cantwell Smith, Harper & Row, 1976, pp. xxii - xxiv.

11) Tillich도 “a participating observer”와 “an observing participant”를 구별했다. 그러나 그는 후자의 입장에서 종교를 고찰함으로써 실제로는 종교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신학적인 입장에 서고 있다. Paul Tillich,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p. 2 - 3.

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종교학”이라는 말이 Max Müller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될때 “비교종교학”과 동일어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조차도 쉽게 알 수 있다. 끝으로 William James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 “우리는 부분적인 조직속에 살고 있으며 여러개의 부분은 靈的인 생활에 있어서 상호교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공연히 억지를 쓰고 질투를 할때 종교는 자아의 파멸을 몰고 올 뿐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타인에게 선량하게 대하고 동정적으로 대한다면 모든 종교가 반듯이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일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욱 완전한 경험과 더욱 높은 소명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길은 각자가 자신의 경험 — 그것이 어느 정도이던지간에 — 에 머물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경험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이다.”<sup>12)</sup>

종교학은 비종교학이다.

12) William James, op. cit., p. 379.